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이 은 진†

국민대학교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중요 전환기에 있는 장애대학생이 대학환경에서 경험하는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충청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장애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이 도출되었으며 핵심범주는 ‘자율적인 대학환경에서 관계경험과 성취를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정립하고 확장해 나가기’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조명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은 장애로 인한 내·외적 벽에 대한 절감단계, 시도와 체득단계, 수용과 성취경험의 내면화단계, 재정립의 단계, 확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서의 핵심경험과 과정에 대한 실체를 논의하였으며 실제 장애대학생의 필요에 근거한 상담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 아울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대학생활에서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통합해서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장애대학생, 변화과정, 관계경험, 성취경험, 근거이론

\* 본 연구는 이은진(2011)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은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Tel : 02-910-5475, E-mail : jjetiger@hanmail.net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수많은 다양성의 공존 속에서 타인들과 관계하며 삶을 형성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역시 무수한 다양성과 개별성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가정하여 장애인을 ‘역경을 이겨낸 영웅’ 또는 ‘불쌍한 주변인’으로 양 극단의 모습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다양한 장애인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담아내는 것은 장애인 본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나아가 진실한 소통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스며들어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장애경험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의 의미’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처한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한 시각장애인 소설가는 “장애에 대한 적응은 전 생애 동안의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다(Noonan, Gallor, & Hensler-McGinnis, 2004). 이는 장애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한 번에 장애가 극복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여러 환경과 시기 속에서 장애로 인한 다양한 난관을 만나고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특정시점과 특정 환경에 따라 장애는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각 시점에서의 실제적인 장애인의 삶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인생의 각기 다른 시기와 상황에 있는 장애인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시기에 장애와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와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의 공감과 유용한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생의 여러 시기 중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장애대학생’이 ‘대학환경’이라는 특정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변화해 나가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장애대학생은 ‘대학환경’이라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장(場)에 들어서게 된다.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시기이며, 난해한 전공공부를 비롯하여 음주와 흡연, 이성교제, 성생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소비활동,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등과 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권석만, 2010). 또한 Chickering과 Reisser(1993)은 대학생은 독립과 자율, 그리고 유능성 획득과 친밀감 형성, 자기정체성수립 같은 발달 과업을 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애대학생은 이러한 도전과 가능성, 그리고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에서 자신의 장애와 더불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 대학생활 동안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앞으로의 삶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 2항의 규정)가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장애대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 대학의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은 총 113명(전문대학: 6명, 대학교: 107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도는 652명(전문대학: 51명, 대학교: 601명)으로 약 6배가 증가했으며, 특별전형 실시대학도 1995년도에는 8개 대학(전문대학: 2개교, 대학교: 6개교)에 불과했지만 2010년도 실시대학은 99개

대학(전문대학: 19개교, 대학교: 80개교)으로 약 12배로 증가했다.

장애대학생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수와 장애대학생의 입학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들 역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제 연한에 졸업한 비율이 낮으며(김남순, 2001; 양재신, 2000), 학사경고를 받거나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남순, 2001;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김진호, 2004). 이런 현실을 보면, 장애대학생이 대학을 통해 자아성장, 전문성 확립,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위해 전진해나가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지속적인 대학생활을 저해하는 여러 난관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지원프로그램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들(김동연, 1997;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원중례, 2001; 김헬레나, 2000)은 장애대학생이 성적관리, 편의시설, 교수-학습, 대인관계, 직업진로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학업과 진로 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실행되었다(김동일, 손지영, 2008; 김민희, 최용용, 2007; 육주혜, 이효성, 진홍섭, 석말숙, 이준석, 2006). 이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예: 통합교육정도,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적 변인(예: 불안, 우울, 자기개념)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가 이루어졌고(김자경, 강혜진, 2008; 권현용, 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예: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병시기)과 사회적 변인(예: 사회적 지지,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참여도)간의 관계 연구(이경림, 박재국, 2007)가 진행되었다. 이외에 장애수용도에 관한 연구(김정은, 박재국, 정지원, 2009)와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태도 및 인식 연구(김진영, 남진열, 2005; 박재국, 2008)가 아울러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대학생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하는 연구로 장애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연구(김미옥, 2005)와 장애대학생의 성인기이전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5)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어려운 현실에 따른 부적응의 실태와 당면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지원방안도 주로 학습과 진로부분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애조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따른 심리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는데 있어 장애조건이외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장애대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특정 대학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장애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 비교적 장애학생수가 적은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기존의 연구는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인식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장애대학생이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임파워먼트 과정을 다루는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장애대학생의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아탄력성연구의 경우 비장애학생과 비교연구로 이루어졌고, 임파워먼트 연구의 경우 성인기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실제적으로 자아탄력성과 임파워먼트 모습이 어떻게 발휘되고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찰하지 못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경험하는 그들만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시절은 한 개인이 새로운 생각과 믿음, 새로운 기회와 역할 그리고 행동을 탐색하게 하고 새로운 학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접하게 하는 시기로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에(Berk, 2009), 장애대학생의 역동적인 삶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변화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대학생의 변화과정과 발달에 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우도 장애대학생의 발달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Watson,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이 대학생활 동안 실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장·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자 했다.

Creswell(1998)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삶은 복잡하여 단편적인 부분이나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holistic) 삶을 그들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있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과 변화하는 과정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은 장애대학생의 단편적인 한 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장애경험’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경험’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장애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실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또는 신입장애대학생에게 대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과 새로운 장애인상(象)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문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가?’이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방법(purposive)을 사용했다(Strua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대학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선정하였다. 선정이유는 대학교 3, 4학년을 대학생활에 적응한 시기로 간주하기(옥경희, 2001)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과정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회고할 수 있는 3, 4학년생을 선정했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대학생활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참여자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와 면담이 끝난 후 첫 번째 연구참여자로부터 본 연구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장애인을 추천받는 형태인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여 총 12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서울 및 충청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5명은 3학년이고, 7명은 4학년이었다. 연령은 12명 모두 20대이며, 성별분포는 여성이 8명, 남성이 4명이며, 장애발병시기는 선천적 장애가 9명 후천적 장애가 3명이었다.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4명, 청각장애 2명, 뇌병변 장애 3명, 지체

장애 1명, 상지장애 1, 중복장애 1명이었다. 장애정도는 1급이 5명, 2급이 2명, 3급이 3명, 4급이 1명, 6급이 1명이었다. 통합교육여부는 8명이 초, 중, 고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2명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병행했으며, 2명은 특수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대학입학방법은 12명 모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었다.

### 연구자 준비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동안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강하고 질적 연구센터 회원으로 워크숍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이론적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여러 차례 분석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 본인은 학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심리검사해석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아 상담을 강의했으며, 로스쿨에서의 장애우 지원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여 자문을 한 경험이 있다. 또한 대학상담센터에서 15년 동안 비장애 대학생 심리상담 하고 있으며 장애인내담자를 상담하고 있는 슈퍼바이지를 슈퍼비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개인적 배경과 장애학생을 상담하고 있는 전문적 경험은 장애대학생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연구의 민감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Olkin(1999)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 비장애인은 연구자이고, 장애인은 연구참여자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장애주체를 다루고 실제 장애인의 목소리를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장애인연구자의 필요성

을 피력했다. 본 연구자는 장애인으로서 내부 자적 관점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했다.

####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자료수집은 비구조화된 회고식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초기 면접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대학생활 동안 인상 깊었던 경험(사건, 일)은 무엇입니까?”, “대학생활에서 좋았던 부분(만족스러웠던 부분)과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면서(학년이 올라오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나요?”로 시작하였다.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장애대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였다. 1차 면접은 2009년 2월에서 2010년 2월까지였으며, 2차면접은 1차 면접 후 보충하거나 확인된 범주를 탐구하기 위해 2010년 3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120분의 휴대용 테이프를 녹음했으며 면담 내용은 녹취한 후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력했으며, 입력한 분량은 A4용지 17장에서 35장 내외였으며 평균 20장 내외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필수 요소인 윤리적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준수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소개받은 후 전화와 메일을 통해 간단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면담장소와 시간은 연구참여자들이 정했으며, 면담장소는 주로 상담실이나 학교세미나실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면담시작 전 연구에 대한 취지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 질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면담을 중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면담내용 중 인용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었으며 비밀 보장과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연구 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참여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로(Stra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면담의 내용을 한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단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념의 명명은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인용하는 체험코드(in vivo code)를 사용하거나,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추상적 해석을 통해 명명하기도 했다. 축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으로(Strass & Corbin, 1998). 축코딩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실시했다.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Strass & Corbin, 1998) 핵심범주를

결정했다.

근거이론에서는 연구자가 분석도구이며,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하다(Strass & Corbin, 1998).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장애대학생에 관한 서적, 신문, 학술적 문헌, 인터넷자료를 꾸준히 접했으며,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개인적 경험과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검사해석,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문적 경험, 그리고 장애기관담당자들 및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서 민감성을 도모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

분석전략으로 사건과 사건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지속적 비교하기와 전문적인 문헌을 통한 이론적 비교하기를 활용했다. 또한 하나의 구나 단어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얻기 위해 ‘안·밖’ 혹은 ‘위·아래’ 개념으로 생각해 보는 플립플롭(Flip-Flop)기술을 사용했다(Struass & Corbin, 1998). 붉은 깃발(Red Flag) 흔들기는 연구자 혹은 참여자의 편견, 가정, 신념이 언제 분석으로 침투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Struass & Corbin, 1998).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항상’, ‘결코 아닌’ 같은 용어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빨간 깃발(위험신호)을 흔들며 그 자료를 더 주의 깊게 보게 하는 신호로 간주했다.

#### 연구결과의 평가

질적연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 고유의 기준을 적용해야한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등, 2005).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연구결과가 실제 현상

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하고 해석 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를 보고한 후 자신의 경험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받았다.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은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대학생 3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 받았다. 의존성(dependability)은 감사가능성(audibility)으로 근거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 2인으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함께 분석을 진행하고 검토를 받음으로써 감사가능성을 평가받았다. 확증성(confirmabi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자문단과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으며 개인적인 편견에 대한 자각을 위해 개인일기를 작성했으며 근거이론의 절차와 분석과정에 따라 충실히 연구를 진행하였다.

## 결 과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에 대한 패러다임모형

개방코딩 결과 155개의 개념과 55개의 하위 범주,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 참조>.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 안에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패러다임모형을 구축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의 ‘장애대학생의 대

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지 못함'과 '나의 필요를 고려한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함'이 '나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함'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율적인 대학환경에서 처음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교수님과 친구들과로부터도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자신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중심현상은 '나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함'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에서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장애와 관련해서 관계와 학업 부분에서 애를 태우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작용/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장애에만 초점을 두는 시선을 인식함', '장애인으로서는 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옴'이 '나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함'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하는데 있어서 '친구나 교수님으로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경험하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정립했느냐'와 '장애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고 주변 사람들과 매스컴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장애에 대해 고심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장애로 인해 고심하는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와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지원망이 버티어줌', '도전하고 잘 하고 싶은 성격특성과 의지가 있음', '대학생활에 대한 포부와 동기를 가짐', '소진(消盡)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음'이 '나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함'이라는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나의 장애와 정면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1)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혼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장애 첫발을 내딛음 나의 장애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림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장(場)에 들어섬		
익숙했던 공부방식의 변화(매체: 점자->파일/도우미 수업보조)에 적응하기 어려움 시험준비할 때나 시험당시 난처한 상황에 처함 학교에서 기본생활(식사, 화장실, 교실이동)을 해 나가는데 난관 만남 친구들이 각자 바쁘고 수업 끝나고 가니 관계 맺기 어려움	기존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	<b>‘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지 못함</b>	인과 조건
활동이 필요한 영역(마임, 자활, 해외봉사 등)에 참여하기 어려움 여러 명과 함께 하는 것(공모전, 다대일 대화)이 힘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함		
교수님이 장애로 인한 예외상황을 고려한 대안과제로 수정해주지 않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이해받지 못함	나의 고충에 대해 이해받지 못함	<b>나의 필요를 고려한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함</b>	
교수님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민망함 교수님의 일방적인 배려(무제한 시험시간/조별과제에서 제외)는 오히려 구별되는 듯함	특별대우는 오히려 차별받는 느낌을 들게 함		
장애와 내가 함께 묶여있었지만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않음 장애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있어 심적고충을 겪음 장애로 인한 한계를 받아들이기 힘들 장애인보면 불편함	장애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		
타인은 나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아픔을 가졌기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함 나에게만 사로잡혀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음 평범한 학생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어 거리감 느낌 친구(동성·이성)에게 거부당할까봐 두려움 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까봐 걱정함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느껴짐	관계에서 내안의 벽을 느낌	<b>나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함</b>	중심 현상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2)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보다는 그냥 참음 나를 포장해서 드러냄 친구와 친해지기까지 시간과 심적부담이 들 도움 받는 것이 편하지는 않음 도움받는 관계로만 머무름	장애가 소통하는데 걸 림돌처럼 느껴짐	<b>나의 장애와 정 면으로 마주하 여 고심함</b>	중심 현상
특별전형으로 들어와서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느낌 장애대학생으로서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 느낌	잘 해야 된다는 부담 감 느낌		
사람들은 나를 보면 조심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 황해함 사람들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함	사람들은 나를 그들과 다르게 대함	<b>“장애”에만 초 점을 두는 시선 을 인식함</b>	
사람들은 나를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함 도움 받는 존재로만 인식 받는 듯함 남들은 나를 불쌍하게 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대로 나를 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장애”자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음 장애에 대해 생각할 여력도 없었음	나의 장애에 대해 진 지하게 생각해보지 못 했음		맥락 조건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내비치는 것을 좋아하 지 않았음 부모님과 함께 장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지 못함 선생님(초, 중, 고)의 과잉보호 또는 제한을 경험했음 친구들(초, 중, 고)로부터 상처받았음 메스컴에서 비친 장애인상은 좋지 않다고 느꼈음	현실적인 장애 상(像) 을 형성하지 못함	<b>장애인으로서 나를 온전히 인 식하지 못한 채 살아움</b>	
부모님은 노심초사 행여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 정해주시고 도움주심 부모님의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음 부모님은 내편에서 나를 믿어주시고 존중해주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심	부모님이 버팀목이 되 어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믿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삶 편의제도(지원센터-도우미제도/시험편의제도 등)를 활용 할 수 있음 첨단시설(예: 점자노트북 등)이 구비됨	신앙심이 힘이 됨  대학 내에 편의제도가 구축됨	<b>지원망이 버티 어줌</b>	중개 조건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3)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남 끈기 있게 해냄	오뚜기 근성을 발휘함		
하고자 하는 것을 함 적극성을 발휘함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 고자 함	<b>도전하고 잘 하고 싶은 성격특성과 의지가 있음</b>	
내가 맡은 일은 잘 하고 싶음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함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음		
꿈을 이루기 위해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	학업을 통해 꿈을 이루 고 싶음		
대학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음 부모님과 교사의 그늘 떠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가짐	<b>대학생활에 대한 포부와 동기를 가 짐</b>	중재 조건
“그 학교”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행복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 여겨짐 교수님 수업에 대해 만족함	자부심 느낌		
관계에서 속앓이 하고 싶지 않음 건강 때문에 애태우고 싶지 않음	상처받기 싫음	<b>소진(消盡)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음</b>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음 “열”받으면 나만 손해라고 느낌	예민함에서 벗어나고 싶음		
열심히 공부하기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과제와 시험에 참여하기	학업에 전념하기	<b>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b>	
스스로 선택한 동아리·스터디에서 힘껏 노력하기 “잘 해야된다”는 각오로 아르바이트에 임하기	맡고 있는 일 열심히 하기		
부모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보기 스스로 돈을 벌어 용돈과 생활비 충당하기	정신적·경제적 독립시 도하기	<b>홀로 생활 감행하기</b>	
자취·기숙사 생활하기 수련회나 여행하기	부모님 떠나 홀로 생활 하기		작용/ 상호작용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람과 접해보기 친구에게 다가가기 친구·교수님이 다가올 때 인연 만들기 친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의 장애에 대해 개방하기 일상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 람과 어울리기	<b>마음과 귀를 열어 관계 만들기</b>	
장애로 인해 대화하기 어렵더라도 애씀 친구들의 좋은 점 따라 해보기 정성을 다해 친구 챙기기 친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 주기	정성 다하기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4)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장애인 친구·선배와 나의 고민거리 공유하기 비장애인 친구·선배에게 나의 고민거리 나누기 친구 입장에 서보기 친구(장애·비장애)와 갈등 풀어나가기	소통하기위해 노력하기	마음과 귀를 열어 관계 만들기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강점에 초점두기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책이 있다고 믿음 한가지 틀에 박힌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대안찾기 대안과제하기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대안모색하기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정하기	작용/상호작용
친구에게 도움 요청하기 교수님께 자문구하기 상담선생님과 심리상담하기	주변자원 활용하기		
에로사항에 대해 담당기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편견을 바로잡으려고 직접 표현하기	주장하기		
상처받는 일 있을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장애로 인해 불편한 부분 일상생활이니 그러려니 함 편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넘어가기	그러려니 함	마음비우기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 찾기 사소한 기쁨 찾기	소소한 행복 찾기		
친구들은 나를 장애인000으로 보기보다는 점점 친구000로 보는 듯함 쓴소리 듣는 것이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처럼 느껴짐 친구와 함께 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소소한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구나”라고 느껴짐	그들(비장애인)과 같은 존재로 느껴짐	타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함	결과
사람들(친구·교수님)이 나에게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이해받는 듯함 사람들(친구·교수님)이 나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격려와 지지를 해줄 때 힘 얻음 사람들(친구·교수님)이 내 입장에 서서 배려 해 줄 때 고마움	상대방의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이 와 닿음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5)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내 장애에 대해 얘기할 때 “상관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받음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서 만족함 도움을 받아도 되겠구나 느껴지고 고마움	“장애를 문제 삼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짐	타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함	결과
장애인과 고민을 나누면서 공감대 느껴짐 내 문제를 써름하는데 비장애인들이 같이 있어주고 조언해 준 것이 큰 몫을 차지함	나의 고민거리를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써 힘 얻음		
처음에 어려웠지만 ‘하니 되더라’를 깨달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느낌 (대학)에서 극복하다보니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음	‘하면 된다’보다는 ‘해보니 되더라’를 알게 됨	성취를 일구어서 자신감 생김	
이루고 나니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밀려옴 열심히 하니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	성취하니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의 인정도 받음		
장애로 인해 힘들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걸림돌은 아니라고 느껴짐 남과 다른 “나의 장애”를 하나의 특성으로 여기게 됨 “장애”로만 탓을 들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됨 나의 장애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순간에 의연하게 대처하는데 익숙해짐 장애가 내 것으로 여겨짐	장애가 내 일부로 느껴짐	장애의 무게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됨	
도움 받는 것이 편해짐 친구에게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짐 남에게 싫은 소리도 하게 됨	‘도움만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남		
장애친구들 접하면서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짐 “장애인은 약하고 천사”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함	사회적 편견에서 탈피한 실제적인 장애인상(像)을 갖게 됨		
장애로 인해 “진국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됨 타인을 이해하려는 계기가 됨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혜택에 대해 좋게 생각함 불합리·모순을 보는 눈이 발달됨 장애가 오히려 열심히 사는데 동력이 됨	장애의 유익한 면을 보게 됨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6)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열심히 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남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게 됨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면서 자유롭게 됨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만족감 느낌	경직된 마음에서 자유 롭게 됨	<b>장애의 무게가 감당 할 수 있을 정도가 됨</b>	
나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꺾어보 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나에게 잘 해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으로 가리지 말고 한 인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함	타인을 볼 때 한 사람 으로 있는 그대로 봄		
사람들을 볼 때 한 가지 점에 치우치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함께 봄 나의 장애에 대해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알게 됨	통합적 관점으로 사람 을 보게 됨	<b>자기중심성에서 벗어 나 타인과 진정으로 만남</b>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게 됨 부모님의 마음 알게 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이 증진되고 깊은 관 계로 되어감		결과
장애를 바라다보는 시야가 넓어짐 교수님과 친구(비장애)를 위한 장애인 이해교육 필요하다고 생각 됨 “자기”안에 자기를 가두려는 장애인친구들 보면 안타까움	장애인 권익에 관심 가짐	<b>장애인으로서는 사명감 가짐</b>	
장애이후에 위해 본이 되고 싶음 나의 직업을 통해 장애인 목소리를 내고 싶음	장애인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음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음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극복하고 싶은 마음 생김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 분에 대해 극복하고 싶음		
나의 일(직업)에 장애가 지장이 될까봐 여전히 걱정됨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잘 살아남을까 걱정됨 진로와 결혼부분에서 벽이 많겠구나 느껴짐	미래(직업, 결혼)에 장 애가 지장이 되지 않 을까 걱정됨	<b>미해결과제를 인식하 게 됨</b>	

으로 마주하여 고심함’ 이란 현상에 대처하기 타났다.

위해 사용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홀로생활 감행하  
기’, ‘마음과 귀를 열어 관계 만들기’,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정하기’, ‘마음 비우기’로 나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  
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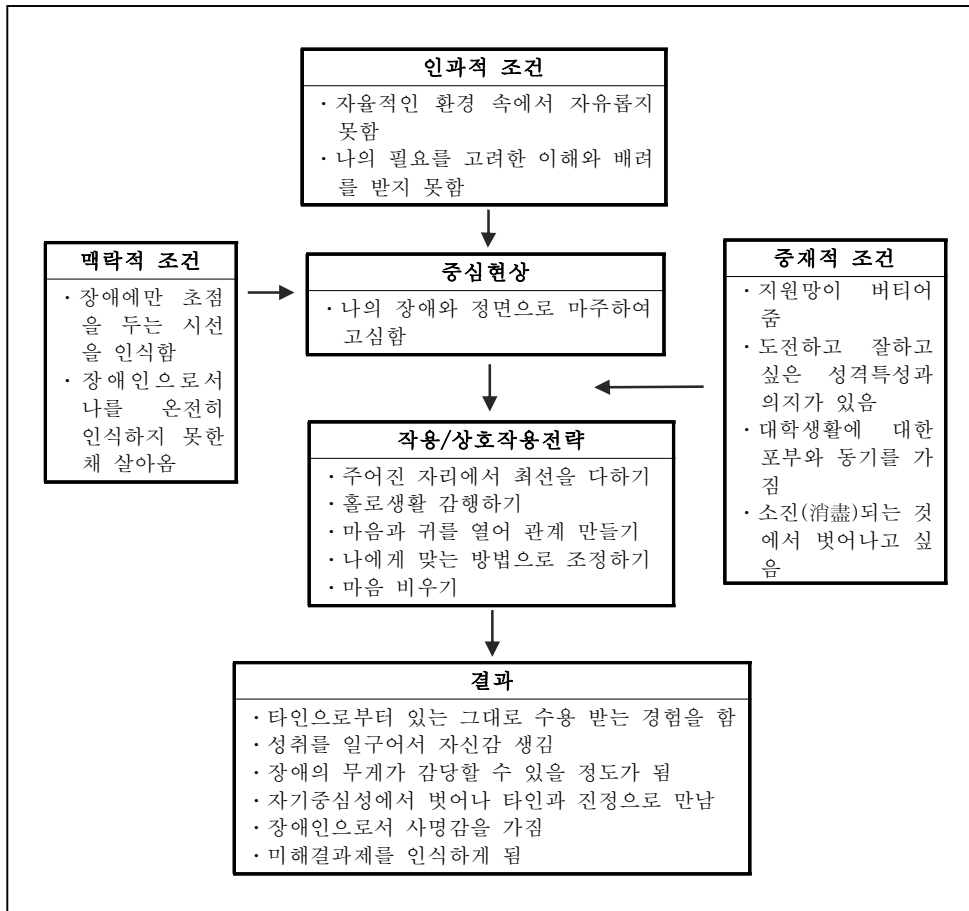


그림 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나의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심함’이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함’, ‘성취를 일구어서 자신감 생김’, ‘장애의 무게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됨’,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과 진정으로 만남’, ‘장애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짐’, ‘미해결과제를 인식하게 됨’의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와 마주하여 학업과 관계 면에서 고심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시도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는 경험을 하고 학업과 홀로서기 면에서도 성과를 맞보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장애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되는 것으로 느끼게 되면서 장애를 받아들이고, 장애인으로서 사명감도 가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갔지만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분석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은 장애로 인한 내·외적 벽에 대한 절감단계, 시도와 체득단계, 수용과 성취경험의 내면화단계, 재정립의 단계, 확장의 단계로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각 단계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장애로 인한 내·외적 벽에 대한 절감단계

참여자들은 대학에 첫발을 내딛었다. 자율적인 사회의 첫 관문에서 나를 둘러싼 내·외적 벽을 만나게 되었다. 나를 둘러싼 외적인 벽은 대학이라는 장(場)에서 스스로 학업과 학교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교수님과 친구관계에서 이해와 배려를 받지 못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가 부각되어 느껴졌다.

장애대학생이 이때까지 장애인으로서 자신

을 되돌아보고 정립할 기회를 가지지 않았거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의식할수록 이러한 외적인 벽에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더 올라오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불리일으켜지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측면, 내면적인 벽을 느끼게 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한 한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막연히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학의 장에서 스스로 장애를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편하지 않았고, 장애로 인한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같은 장애인을 보면 여전히 불편함이 올라왔다.

참여자들은 실제 관계에서도 도움 받는 관계라는 인식이 강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어려웠고 나의 약한 모습 보면 타인들이 싫어할까봐 ‘괜찮고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친구와 친해지기에 ‘장애가 걸림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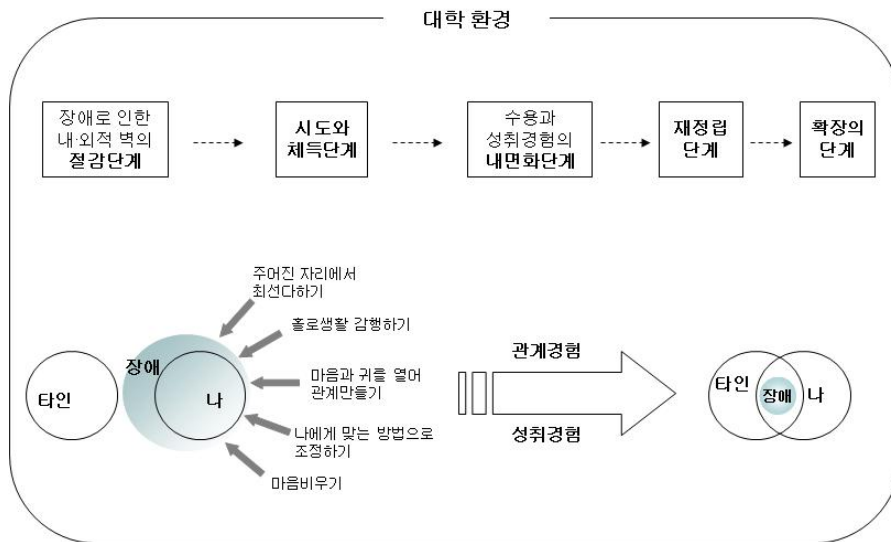


그림 2.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되지 않나' 늘 긴장해야 되었고, 친구가 '나의 장애'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적부담을 느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다.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한 이러한 학업과 관계 면에 난관을 만나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참여자들은 이러한 장애로 인한 벽을 절감하기에 이러한 벽을 낮추거나 허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다.

자문 교수님들도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들어온 한 달도 안된 학생보고 "운동을 하라"고... 제가 똥똥해 보였나보죠. (웃음) 사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어떻게 먹고 시험도.. 제일 처음에 어... 책도 없고... 제가 솔직히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거 때문에 학점이 많이 손해보고 그랬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무 이해를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과잉친절, 일방적인 배려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 소극적이고 닫혀있는 사람으로 볼거 같은..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일 거 같았어요... <중략>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습이 이상한데 저 사람이 나랑 같이 다니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내가 말 거는거 아닌가? 그런...(참여자5).

어쨌든 한계가 있었다는 거... 듣고 싶은 강의를 못 듣는다든지... 배려를 해주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강의실을... 실습실이라고 옮길 수 없다고... 그래서 수업을 못 들었어요(참여자6).

### 시도와 체득단계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와 마주하면서 장애로 인한 내·외적 벽을 허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체험하면서 배워나갔다. 참여자들은 학업과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에서 열심을 다했다. 참여자들은 학업에서 '특별전형으로 와서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장애가 있는데 공부마저 못하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거나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비장애인보다 못한다'는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학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가고 싶은 동아리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정을 붙이면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맡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하며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손보고 또 손보는 식의 정성을 다하며 '잘 해야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했다.

참여자들은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부모님이 장애인 자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용돈을 벌거나 부

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자취·기숙사생활을 하거나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서 여행을 시도했다. 참여자들은 관계에서 아직 내면의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내서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어나갔다. 참여자들은 동아리, 학과 친구, 도우미, 부전공친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친구들과 접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만나는 친구 중에 호감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표하기도 하고, 친구나 교수님이 다가올 때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으로 만들어갔다. 참여자들은 특히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나 장애가 생기게 된 경위 등에 관해 간단하게 개방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안 들리거나 안 보이더라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며, 다른 친구들이 보여주는 대인관계기술을 관찰해서 따라해 보기도 하면서 친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대학의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며들어가려고 노력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장애로 인해 ‘남과 다르다’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그들 자신도 자신의 장애로 인해 ‘남과 다르다’라는 인식을 비장애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상쇄시켜 나갔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 친구의 관점으로 친구의 상황을 보려 노력했고, 장애·비장애친구에게 꺼내기 힘든 고민거리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친구와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이제 ‘너무 열심히 하거나 비장애인과 꼭 똑같이 해야된다’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상황에 대처하기도

했다. 즉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참여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 하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갔다.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참여자들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 기관에 건의하거나 친구나 교수님이 가진 편견에 대해 직접 바로잡는 노력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비우는 전략도 사용했다. 이렇게 참여자들이 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모님의 지지와 신뢰, 신앙심, 대학 내 편의제도, 도전하고 잘하고 싶은 성격특성과 의지, 대학생활에 대한 포부와 동기, 소진(消盡)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장애로 인한 내·외적 벽을 허물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대처를 하면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다.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 다 잘 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니깐... 내가 못하면 애들한테 앞보이고 왕따 당하지 않을까.. 청각장애가 있으니깐... <중략> 1학년 때는 예습, 복습을 진짜 철저히 했어요.<중략>.. 친구나 도우미에게 간식도 잘 챙겨주고 잘 하려 했어요 (참여자4).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아... 내가 이러

이러해서 안 보이게 됐는데... 이런 얘기도 해 주고... 자연스럽게 이리이러한 재미나는 일도 있더라. (웃음) 얘기도 해 주고... 친구들이 궁금한 거를 생각해서 다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서 이리이러해서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경우는 대화하다가... 은연중에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비슷한 연결될만한 것들이 있으면 아 나도 이리이러해서 그렇다 (참여자5).

집에서는 항상 엄마랑 어디 같이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고... 친구들이라면 글썽... 대학생이라면 다 해 볼 수 있는 것을 해 봐가지고 좋았어요. 영화도 보러가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데서... 맛있는 거도 먹고 공연도 보러가고 좋았어요(참여자10).

동아리에서 애네들은 이런 부분을 하니깐 나는 연락을 하던지 자료집을 만들 때 조언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위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못하는 일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런 거 보다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야겠다...(참여자1).

저는 남들의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쓸려고 했어요.<중략> 느껴졌지만 그냥 그러려니 말거나 했어요(참여자12).

### 수용과 성취경험의 내면화 단계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동안 관계와 학업, 일적인 면(예: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등)에서

시도와 노력을 한 결과, ‘수용적인 관계 경험’과 ‘성취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친구나 교수님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과 장애로 인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성취한 경험들을 내면화했다. 참여자들은 비장애 친구들이 점차 장애인000가 아닌 친구000로 여겨지는 경험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비장애친구들과 “같다”는 공유부분이 커지면서 관계에서의 괴리감과 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친구나 교수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특별대우나 제한을 두는 일방적인 배려가 아닌 나의 입장에 서서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장애에 대해 용기내서 개방하거나 장애에 관해 어려움에 대해 토로할 때 진정으로 타인이 들어주고 “장애는 문제가 안 된다”란 말을 들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타인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투영해서 본다고 하면, 참여자들은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문제 삼지 않는 “의미 있는 사람”들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가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왔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이해받고 수용 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도 고민을 나누면서 동질감, 공감대를 느끼면서 이때까지 가졌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벗게 되는 계기를 얻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나서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통해서 과거 가졌던 부정적인 장애에 대한 내면화를 다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기에 장애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이나 여전히 나를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해 질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한 결과, 장애로 인한 난관에 대처하면서 성취를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 장애로 인해 어렵게 느껴졌던 교재 문제, 이동문제, 대화문제, 발표문제 등이 나를 해결되어가고, 학업상의 성취, 동아리에서의 성취, 부모님 떠나 홀로 여행 성취 등 성공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무조건 하면 된다’보다는 ‘해보니 되더라’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를 알게 되고 ‘앞으로도 난관이 있겠지만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의 인정까지 받게 되어 ‘장애’라는 것을 다시 좀 더 긍정적으로 내면화하게 되었다.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담담히 맞설 수 있었으며 자신이 가졌던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가끔 친구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좀 그랬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 고백 들을 때도 많고... 저를 특별하게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별 다를 게 없구나”라고 얘기해주고 <중략>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연애하고 싶다고 그러면 “너는 노출도 안 시키면서 어떻게 연애할래.”이런 말이

오히려 저를 그네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거 같아 기분 나쁘지 않아요.(참여자2).

\*\*\*\*\*과 교수님은 믿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믿어주시고 너는 이것만 해도 돼 그게 아니고 똑같이 과제를 주시고,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기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어떤 방법으로 좋겠냐고 접근해주셔서 감사했구요. 제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참여자5).

너는 못 알아들어도 너가 비록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 너 이런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마다 다 불완전하니깐 그거 너무 신경쓰지 말아라 하면서전과 같이 대해주는 것이 저는 좋아요(참여자4).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혼자 뭔가를 해 나가는 거... 안 보여도 혼자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자신감이 조금씩 키우는 거 같고... 앞으로도 혼자 잘 할 수 있겠다(피험자10).

발표... 발음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제가 하겠다 연습을 했고, 그거도 연습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긴장이 되니깐.. 그래도 끝나고 나면 하니깐 그래도 되네...(피험자12).

#### 재정립의 단계

참여자들은 관계에서 수용 받는 경험과 장애로 인한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성취를 맞본

후 장애에 대한 새로운 상(象)을 정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제 장애는 행복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장애물이 아님을 체험한 후,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느끼게 되었다.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장애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 받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취할 수 있음을 통해서 “나도 그들과 같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비장애인들과 같은 부분이 커지면서 동시에 남과 다른 나의 장애는 하나의 특성으로 편안하게 여기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제 장애는 내 일이 되어버리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때까지 ‘안 되고 못한 것’은 모두 장애 탓으로 돌렸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장애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순간에도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도움 받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자신의 장애로 인해 못하는 부분은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의 전환과 실제 친구들과 도움 받으면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고 참여자들 또한 비장애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제는 ‘나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좋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 좋다’라고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다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때까지 부정적으로 확립되었거나 확립을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특히 대학에 다니는 열심히 잘 생활하는 장애대학생이나 장애인을 접하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스크에서 비쳤던 “장애인은 약하거나 천사, 영웅적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회가 심어준 장애인상을 탈피하여 현실에 기초한 실제적인 장애인상(象)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아닌 유익한 면까지 보게 되었다. 장애가 있기에 오히려 장애를 이해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제도적 혜택이 주어지면 누려야 된다고 여기게 되고, 남보다 불합리나 모순에 대해 더 잘 볼 수 있으며, 장애가 있어서 오히려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때까지 장애의 무게가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고 경직되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장애가 불편하지만 걸림돌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에서 심리적 안정도 찾게 되었다.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나 편견에 맞서기 위해 너무 열심히 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못할 수도 있지’라는 여유가 찾아오고, 예전에는 나의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나를 수용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기에 그런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동안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자유로움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서 만족감도 느끼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이제 ‘장애’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됨을 느꼈다.

할 수 있는 거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있고,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고, 공부만 잘 하면 될 거 같아요 <중략>

장애는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하나의 특징인거 것 같아요(참여자1).

지금이라면 그 때 오리엔테이션 상황이 다시오면 “이 손은 불편하다” 라고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참여자9).

장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에서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던거 같아요. 지금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선배이기도 하고 제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깐 그냥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이...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살 수 있구나.. (참여자8).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애가 있어서 대학생활에서 더 좋은 사람들을 걸러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장애가 없었다면 이 사람 저사람 뭐 다 잘 지낼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진국이라는 사람들을 못 추려낼 수도 있고 오히려 장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더 잘 보이니깐 추려져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게 아닐까<중략> 공부도 열심히 하는 원동력도 되구요(참여자11).

### 확장의 단계

참여자들은 이제 관심을 타인과 사회로 옮기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씨름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타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로 관심이 확장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참여자들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

다. 참여자들은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기보다는 타인을 겪어보고 판단하려 노력했고, ‘나에게 잘 해 주는 사람과 잘 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 보려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사람을 장점과 단점을 통합해서 보려했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 못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였다. 참여자들은 예전에 타인의 마음을 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타인도 아픔이 있구나’, ‘나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진정으로 아파했다. 이제 부모님의 걱정하시는 마음도 더 알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더 안정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수용경험을 토대로 타인을 수용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참여자들은 또한 여러 다양한 장애인이 있다는 것과 여러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졌다. 이제 장애를 내 개인의 주제로 보기보다는 장애인의 권익에까지 관심이 확장해나갔다.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장애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아직도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친구를 보면 ‘예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안타까움도 느꼈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장애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으며 장애인 후배를 위해 분이 되고 싶은 사명감을 가졌다.

한편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동안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과 다시 극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부딪힐 또 하나의 벽을 예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때 ‘장애가 지장이 되지 않을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결혼에서 난관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결혼과 진

로부분에서 또 넘어야 하는 산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다 나름대로 아프다는 거는... 진짜 평범한 사람도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인간으로 공감이 가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아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웃음) 이제 제가 가족과 같은 사람을 얻게 되었으니깐 다른 사람 아픔도 알게 되고...(참여자7).

제가 장애대학생으로서 장애대학생 한 명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중략>... 아직 제가 목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있게 된다면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직장인이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건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참여자8).

결혼 같은 경우는 해야죠. 사실 그래요. 장애인이기때문에 쉽지는 않을거고... 다른 면에서 더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이 될지... 사회적 위치가 될지, 저의 가능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무튼 미래는 불투명하니깐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긴 하죠. 직장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할 거고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아놓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 같아요. 벽이 있겠죠...(참여자5).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실제 대학생활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성장해 나가는지를 탐색하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실체이론을 개발하였다.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은 “자율적인 대학환경에서 관계경험과 성취를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정립하고 확장해나가기”였다. 장애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장애로 인한 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하지만 다양한 타인들과의 관계경험과 생활전반의 성취경험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과 사회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다.

장애대학생에게 대학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좌절경험도 안겨주지만, 동시에 자신의 장애에 대해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가능성과 도전의 장(場)이었다. 장애대학생은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한다. 대학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를 부여받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대학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과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만날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는 동시에 그만큼 관계를 맺고 성취할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즉, 장애대학생은 여전히 편견어린 사람도 만났지만 장애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도 만났고 여러 가지 과업에 도전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장애로 인한 힘든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장애대학생에게 대학은 장애에 대한 재정립을 이루게 하는 창조적 공간이 되고 있

었다.

대학의 장(場)에서 장애대학생은 ‘장애인으로서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있었다. 장애대학생은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통합해가는 경험을 했다. 대학에 들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 나가는 경험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장애대학생의 경우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과는 다른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정하고 극적인 새로운 장(場)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신의 장애와 부딪힐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즉 장애대학생은 자신의 장애를 되돌아보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대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정립할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Erikson(1963)은 청년기동안 자기정체성이 확립되면 자신의 능력과 역할, 책임에 대해 더 분명히 알게 되며 그 이후 성인초기 단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Vaillant(197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적연구를 한 결과 성인전기와 중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대인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청년기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인 ‘자기정체성 확립’과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의 맥락에서 보면 장애대학생은 자기를 정립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증진과 더불어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년기와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hickering와 Reisser(1993)은 에릭슨의 이론을 확장하여 대학생의 발달모델을 제시했

는데, 이 모델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자기정체성 수립을 강조했다. Chickering과 Reisser(1993)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7가지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즉 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지적·신체적·사회적 면에서의 유능성 증진, 타인의 감정에 대한 자각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향상, 자율성 발달,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 정체성 확립, 직업과 미래에 대한 목적 및 방향 설정, 자신의 행동을 이끄는 통합된 가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ickering와 Reisser(1993)은 대학생의 발달은 이러한 7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개인마다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이러한 대학생의 발달에 초점을 둔 연구가 미비하고 특히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기 때문에 ‘장애대학생의 자기정체성’ 부분을 대학생의 발달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대학생의 경우,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Chickering & Reisser, 1993)인 ‘자기정체성’은 대학환경에서 부딪히는 장애로 인한 난관을 해결해나가면서 그 결과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애대학생은 대학생활 전 과정을 통해 Chickering와 Reisser(1993)이 제시한 다양한 발달과업들을 달성해나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은 학업과 관계 면에서 꾸준히 유능성이 증진되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조절능력이 향상되었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장애인상을 형성하고 있었고, 독립과 상호의존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율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전체적인 조망능



력까지 갖춘 성숙한 대인관계 측면을 나타냈으며, 장애인으로서 미래에 부딪힐 난관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장애인으로서 사명감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장애대학생은 한 개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의 장애’라는 부분과 만나야 한다. 즉 장애대학생은 장애정체성과 장애수용이라는 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자신을 정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익섭과 신은경(2005)은 장애정체성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한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장애에 대해 고심하고, 대처하면서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밝힐 수 있어서 이익섭과 신은경(2005)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환경에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이 처음에는 대학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데 있어 장애가 걸림돌처럼 느껴지면서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관계와 학업 면에서 노력하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고 그 결과 장애로 인해 때때로 힘들 수는 있지만 ‘학업과 관계 면에서 장애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님’을 체험하고 ‘남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남과 다른 나의 장애는 내가 가진 하나의 특성’으로 여기게 되며 ‘장애로만 탓을 들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장애에 대해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장애를 내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Livneh(2001)은 장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한 지표로 장애를 수용하는 것을 언급했고, Naugle(1991)와 Shontz(1989)는 재활상담과정에서 장애수용과 자기정체성을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신체적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보고 개입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한편,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예: 김정은, 박재국, 정지완, 2009)는 장애수용은 장애유형이라는 장애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재활의 의미이기보다는 발달단계상 필요한 주제이며 대학생활에서의 장애로 인한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고군분투한 결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은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적극적인 수용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수용은 ‘장애유형 이외에 장애 시작 연령, 장애정도’라는 장애조건에 의해 단순히 영향을 받기보다는 무엇보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 고심하면서 관계형성, 학업과 일적(동아리활동·아르바이트)인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장애대학생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시도하는 주체적인 대처전략을 통해 장애를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 사회적인 집단 정체성보다는 장애인으로서 한

개인이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장애대학생이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상태’는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도움만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편견에서 탈피한 실제적이고·긍정적인 장애인상을 수립하며, 장애를 보상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지 않으며, 장애로 인해 여전히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짐에 따라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장애를 담담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었다. 장애대학생이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정립’ 하는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은 대학환경에서 만난 장애로 인한 내·외적 난관을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을 통해서 해결한 후 맛보는 ‘소중한 결과’들의 축적물이었다.

“대학생활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며, 두 번째 원천은 학업적 성취와 자기성장감이다”(권석만, 2010)라는 말처럼 장애대학생의 행복의 원천도 관계경험과 성취였다.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 모두 고민도 많고 꿈도 많은 이 시대를 같이 공유하는 청년세대인 것이다. 다만 장애대학생에게는 특수한 고민으로서의 장애가 스며들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경험과 성취가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이 ‘장애인으로서 자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의 심리적 내면화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은 무엇보다 자신의 장애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도 소

화하지 못하고 무겁게만 여겼던 장애의 무게를 타인과 함께 더불어 나누게 되었다.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場)에서 장애를 문제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비춰주는 자기대상(selfobject)을 만났다. 장애대학생은 가족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동일시할 수 있는 장애인을 실제로 만났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동일시 대상’은 영웅적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대학생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또래 장애대학생, 선배들이었다. 장애인을 꺼려했던 장애대학생도 또래의 대학생활 잘 하고 있는 장애대학생을 만나서 함께 공유하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장애인 상(像)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았다.

장애대학생은 관계경험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 노력해서 영끌어낸 성과로 인해 자신감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장애대학생이 느끼는 자신감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고 매 순간 힘이 들지만 해 나감으로써 얻어진 체험적 성취를 통해 형성한 것이었다.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성취는 ‘무조건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영웅심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매순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얻은 체험적 성과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더불어 이루어낸 관계적 성과였다. 즉 장애대학생에게 성취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미리 겁내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구어낸 성과’를 의미한다. 장애대학생은 이런 관계경험

과 성취경험의 내면화과정을 통해 예전에는 비장애인과도 ‘다른 것’ 같고 장애인과도 ‘다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비슷한 부분과 공유할 부분이 커지면서 ‘다름’에 대해 민감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다름도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은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을 내면화 한 결과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장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지도 조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은 이제 타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토대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의미 있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은 통합적 관점으로 타인을 보고, 공감하는 능력도 더 증진되고, 장애인으로서 사명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은 장애대학생이 장애의 난관을 뚫고 나와서 보이는 성숙한 모습을 반영해준다. 막연한 낙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난관을 해결한 후 영글어진 성숙한 모습이다. 또한 한편으로 장애대학생은 여전히 앞으로 사회의 벽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장애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또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은 “장애로 인한 내·외적 벽에 대한 절감단계”, “시도와 체득단계”, “수용과 성취경험의 내면화단계”, “재정립의 단계”, “확장의 단계”였다. 장애대학생은 자신

의 ‘장애’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주하여 씨름하면서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을 통해 장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다보는 과정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은 장애대학생이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한 결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조망해본다면,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대학환경에서 장애로 인해 학업과 관계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인과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을 밝혔다는데 의미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고심했던 내용들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시작연령, 통합교육유무, 성별’ 요인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의 ‘신앙심’, ‘오뎅이 근성’,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경향’,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경향’, ‘포부와 동기’, ‘소진(消盡)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장애로 인한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촉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장애대학생이 대학환경에서 학업과 일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귀를 열어 관계를 만들고, 홀로서기를 감행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 하에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거나 때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할 것을 찾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제 전략과 과정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수동적

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가장 좋았던 부분”으로 공통적으로 “관계에서의 경험”을 꼽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탐색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장애대학생이 경험한 이해와 지지, 그리고 배려하는 장애대학생이 관계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며, 쌍방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도 또한 장애대학생의 입장에 서서 진솔한 태도로 이해와 지지, 그리고 배려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장애대학생이 체험하는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지지는 상대방이 장애대학생의 입장에 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소통한 후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상황에서 느끼는 사회적 편견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장애대학생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었다. 장애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편견’은 사람들이 장애에만 초점을 두고 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장애대학생이 비장애인친구와 장애인친구 속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부딪힘으로써 비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동시에 장애대학생 본인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졌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비장애친구도 역시 장애친구와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가졌던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경험이 몇 시간의 장애체험과 장애이해교육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리감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회적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의 ‘장애’에 대해서 함께 관심가지면서 경험하는 시간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대학생을 위한 상담개입에 대한 논의를 하던 다음과 같다.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관계와 학업 면에서 어려움을 절감하고, 내·외적 벽에 갇혀있는 시기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은 장애대학생의 이러한 장애로 인한 불편한 부분과 심리적 갈등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장애대학생이 지금 겪고 있는 장애로 인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대학생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장애대학생의 힘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며, 장애대학생의 내적인 갈등과 고충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이해와 공감으로 반응해야 한다.

장애대학생이 느끼는 내면의 관계 벽은 과거 상처받았던 경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의 상처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사건이 현재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야 한다.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장애 상(像)을 형성하는데 어떤 상황과 경험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탐색해야 하며 과거 의미 있는 대상인 부모님, 학교선생님, 친구들과의 경험, 기타 주위사람들의 시선 등을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재현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대학생이 자신을 둘러싼 내·외적 벽을 허물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체득을 하는 단계로 상담은 나아가야 한다. 장애가 비록 난관으로 작용하더라도 관계나 학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대학생이 관계와 학업, 그 외의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불안, 두려움, 부담감 등을 함께 나누며 본 연구에서 밝힌 관계와 학업, 그리고 일적인 면에서 ‘장애대학생이 실제로 시도한 대처전략들’을 상담 장면에서 장애대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애대학생이 관계와 학업, 일적인 면에서 성과를 하나씩 얻을 시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상담은 장애대학생이 이러한 성과를 맛보게 된 것은 장애대학생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에서 이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고, 어떤 전략들을 사용했으며,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좋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힘든 고비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대학생은 이러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경험과 성취경험을 내면화 한 뒤, 장애인으로서 자기에 대해 재정립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상담은 장애대학생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지, 장애를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지를 나누어야 한다.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명료화해야 한다. 장애대학생의 ‘자기에 대한 정립’은 상황에 떠밀려 운명적으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이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장애대학생은 장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타인, 사회로 관심이 확장되는 시기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담은 장애대학생이 일구어낸 성장에 대해 격려해주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지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상담은 ‘장애인으로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장애로 인한 난관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를 정립해 나가기’라는 성장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대학생이 타인과 사회로 관심이 확장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장애대학생이 ‘주체적 존재’이자 ‘상호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며 ‘나의 장애’가 오히려 실존적 성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조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어떤 핵심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장·발전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역

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애대학생의 단편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삶을 보여주며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대학생의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할 수 있었다.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난관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직접 사용하는 대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어서 장애대학생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신입 장애대학생이나 현재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에게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근 심리학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역동적인 심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들이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의 장(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기제와 심리적 과정을 조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탐색한 장애대학생의 심리적 역동을 토대로 장애대학생의 심리상담개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경험하는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조명했지만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촉진기제와 억제기제를 탐색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촉진기제와 억제기제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입학한 후 장애를 입은 장애대학생은 면담하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온 이후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극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시절동안 장애인이 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와 이와 더불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 연령대의 장애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장애대학생의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청소년이 대학으로 들어오는 전환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대학결정과정, 대학입학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도움이 되는 요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성장한 것을 토대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대학생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원하는 꿈을 이루어나가는지, 어떤 난관이 있고, 그러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학생활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경험과 과정을 거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 학지사.
- 권현용, 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2), 43-56.
- 김남순 (2001). 장애학생의 특례입학과 대학시설 환경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81-100.
- 김동연 (1997). 장애학생 특례입학제도에 따른

- 대학교육 지원체계 연구. 미술치료연구, 4(2), 29-57.
- 김동일, 손지영 (2008). 장애대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한 e-러닝 설계전략연구. 특수교육연구, 42(4), 293-312.
- 김미옥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1), 351-381.
- 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31-60.
- 김민희, 최용용 (2007). 청각장애 대학생에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성 연구-진로탐색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0(2), 193-212.
-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장애 대학생 학업성취 실태 및 대학생활 욕구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37(4), 335-337.
- 김자경, 강혜진 (2008).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비교.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1(2), 211-225.
- 김정은, 박재국, 정지완 (2009). 장애대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영향 요인간의 관계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2(1), 317-334.
- 김진영, 남진열(2005).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연구. 청소년학 연구, 12(4), 39-58.
- 김진호 (2004).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인문과학논총, 13, 119-136.
- 김헬레나 (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재국 (2008). 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109-125.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5).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재신 (2000).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현장특수교육, 11, 40-44.
- 옥경희 (2001).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학생생활연구, 8, 21-39.
- 원종례 (2001). 장애대학생의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연구, 8(1), 47-70.
- 유주혜, 이효성, 진홍섭, 석말숙, 이준석 (2006). 장애대학생의 EDI 진로탐색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및 자원 방안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중북·지체부자유연구, 50(1), 1-20.
- 이익섭, 신은경 (2005). 장애정체성 개념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509-530.
- Berk, L. E. (2009). 생애발달 II: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정, 김민희 역).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7년에 출판).
- Chickering, A. W., & Reisser, L. (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tage Publications.
- Livneh, H. (2001). Psychosocial adaptation to

-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3), 151-160.
- Naugle, R. I. (1991). Denial in rehabilitation. Its genesis, consequences, and clinical management. In R. P. Marinelli and A. E. Dell Orto (Eds).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physical disability*, pp.105-129. New York; Springer.
- Noonan, B. M., Gallor. S. M., & Hensler-McGinnis, N. F. (2004). Challenge and Success: A Qualitative Study of the Career Development of Highly Achieving Women with Physical and Sensory Disabil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68-80.
- Olkin, R. (1999). *What psychotherapists should know about disability*. New York: Guilford Press.
- Shontz, F. C. (1989). A future for research on rehabilitation and adjustment to disability, *Rehabilitation Bulletin*, 33(2), 163-176.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Vaillant, G.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Little Brown.
- Watson, E. A. (2005). *Developmental Skill attachment, problem solving perceptions and academic succes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a university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원 고 접 수 일 : 2011. 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18

게 재 결 정 일 : 2011. 11. 24



## **The Change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College Life: Based on a Grounded Theory Approach**

**Eun Jin, Lee**

Kookmin University

**Sung 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substantial theory which may describe the kind of experiences and changing processes of disabled students to go through in a university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a total of 12 juniors and seniors with disabilities in Seoul and Choongchong a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disabled students through college life were consisted of the five phases: 'realization', 'trial and acquisition phase', 'internalization', 're-establishment', 'extension phase.' The core category was 'to establish and expand self by accepting disability through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achievement experiences in an autonomous university environment.' The finding provide implications in improving psychological growth in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lso the findings demonstrate direction in designing counseling intervention directions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lationship experiences, achievement experiences, change process, grounded theory*